# "불교 알았다면 라스베이거스 참사 없었다"

## 美 언론 릴리전뉴스, 참사 현장서 불교계 추모기도 '주목'

라스베이거스 참사로 인해 서양사회에서는 신(God)과 종교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만약 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무신론으로 알려진 불교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59명의 사망자, 527명의 부상자를 낳은 라스베이거스 테러 참사 때문에 미국 내 신을 믿는 종교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다고 미국 종교지 '릴리전뉴스'가 10월 7일 보도했다. "신이 어디에 있나" "신이 있기는 한가" 등을 외치며 라스베이거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만약 신이 있다면 이런 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종교 자체에 대한 많은 이들의 불신이 커져, 유신론의 종교인 기독교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추모 현장 인근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부스를 설치하고 희생자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추모 광장에 가장 많이 모인 단체는 기독교였다. 기독교 복음 전도회는 라스베이거스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찬송가를 전자 음악으로 연주하며 희생자를 위해 노래했다. 성경구절을 소리 높여 읽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는 유대교였다. 유대인들은 시내 건너편 임시 유대교 회당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비극'이라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추모의 노래 역시 빠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불교는 조금 다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종교들과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

라오스 · 버마 · 태국 · 스리랑카 출신 40여명의 스님들은 추모현장으로 모였다. 이들은 라스베이거스에 임시 법당을 만들었다. 스님들은 이곳에서 총격으로

**기독교 추모 부스 최다 설치 불구**
**시민사회 신에 대한 불신 커져**
**유신론 종교 타격 입어 '울상'**
**깨달음 강조하는 불교에 관심**
**현장 임시법당도 사람들 관심↑**

세상을 떠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미얀마 출신 틴 타임즈 스님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이기에 열심히 기도하고자 나왔다"며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며 같은 한 공동체의 일원이다.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인생은 이렇게 덧없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간 그들이 안타깝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충격적인 참사에 많은 종교계가 추모를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모였다. 불교계서도 40여 명의 스님들이 임시 제단을 만들어 기도했다. 사진출처=릴리전뉴스

태국 불교 스님들은 법회를 위해 미국 오그던 402번가를 개방하기도 했다.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은 법회에는 불교문외한들도 많았다. 하지만 스님들이 불교에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상냥하고 따듯하게 대해줘 의구심을 갖고 다가왔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법회를 주최한 친가득 스님은 △화내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스스로 편안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등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스님은 "몇몇 사람들은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어한다. 스스로 항상 살피고 오로지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당부했다.

'스탠다드'는 "불교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태와 극명히 대비된다. 불교를 알았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평화를 증진코자 노력하는 승려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402번가를 방문한 미국 '스탠다드'지 취재기자는 "불교는 홀로 고고함을 외치거나 무력하게 신을 찾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 불교, 스코틀랜드 교도소서 '선풍적 인기'

## 5년 새 급성장… "감옥에서 명상 도움 돼"

불교가 스코틀랜드 교도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로 거듭나고 있다.

스코틀랜드 매체인 '데일리레코드'는 10월 9일(현지시간) "최근 스코틀랜드 교도소 내에서 20명의 수감자들이 불자로 등록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2명의 수감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불교로 등록했다.

스코틀랜드 담당 교도관은 "2014년 전까지는 불교를 믿는 수감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이후부터 불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불교는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영국의 교도소에서도 10년간 8배나 불자가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 하고 있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영국 교도소 관계자는 "많은 재소자들이 그들이 따르는 종교를 불교라 말하고 카르마와 자비에 대해 말한다. 이는 실로 놀라운 현상"이라며 "과거 수감자들은 더 좋은 음식을 얻기 위해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불교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는 재소자들에게 부처님 진리를 알리고 이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1985년 웨일즈에 설립된 '앙굴리말라'가 유명하다. 영국 출신 아잔 케마 담모 스님이 영국 내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에게 불교교육을 시작하면서 교도서 법당 설립에 적극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1985년 3월 단체를 설립하고 에든버러, 킬마너크, 피터헤드 등에 있는 교도소 안에 법당을 만들었다.

영국 교도소 관계자는 "재소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후 불교에 귀의 했고, 수감기간 동안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앙굴리말라' 감옥 지도법사인 로드 에브버리씨는 이와 관련 "명상은 수감자들이 좁은 감옥에서 힘든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며 "불교는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종교다. 어쨌든 수감자들은 욕망이 일어나도 갇혀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불교는 그들에게 적합한 종교"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 "불교와 함께하면 일터에서도 행복"

## 영국 워익 경영대학원 연구 결과
## 호주 언론 '프로보노' 보도

**이윤창출, 사기진작 효과**
**창의력 · 통찰력 증진해**
**개인 간 관계 개선하기도**


영국서 불교가 일자리의 행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보고가 발표됐다. 사진출처=프로보노

영국서 불교와 일자리에 관한 연구조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영국 워익 경영대학원서 이윤창출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불교가 끼치는 영향을 연구, 결과 발표했다고 호주 언론 '프로보노'가 10월 9일 전했다. 불교를 모토로 일하게 되면 직원들의 다양한 창의력과 통찰력이 발현될 수 있고, 개인 간 관계가 개선돼 실질적 사업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연구는 불교가 직원들의 능률을 신장한다고 밝혔다. 연구의 수석 책임자이자 워익 경영대학원 교수인 할리 비어 박사는 "심리적 안정감이 직원들에게 창의력 · 통찰력을 준다. 많은 회사원들은 개인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물질 만능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는 과도하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회사의 영향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회의 핵심이자 불교의 핵심인 '자비'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자비정신으로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면 창의성과 통찰력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는 불교가 사업적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할리 비어 박사는 "불교서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와 불교 철학 등이 개인 간 관계를 개선하며 더 나은 행동으로 발전시킨다"며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과정서 불교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다. 거래를 맺는 과정, 협업하는 과정서 훨씬 좋은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박진형 기자


일본 전통 요괴 '누에'와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싸우는 모습은 이번 전시의 백미로 꼽힌다. 사진출처=다이카쿠지 홈페이지

# 日 사찰서 '만화 원피스' 20주년 특별전

## 교토 다이카쿠지 사원서 대규모의 다양한 전시 지속 개최

일본의 문화아이콘으로 불리는 다이카쿠지 사원에 특별한 전시가 진행된다.

일본 진언종 다이카쿠지파 총본산 교토 다이카쿠지 사원서 인기 만화 '원피스'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개최했다. 절 회랑과 전각 3개를 거치는 규모로 그 규모도 매우 크다.

일본 전통예술방식으로 원피스의 내용을 표현했다는 평가다. 특히 다이카쿠지의 정원을 활용한 800㎡의 정원화가 백미로 꼽힌다. '원피스'의 주인공인 '루피'와 일본 전통 괴물 '누에'가 싸우는 모습으로, 색이 있는 돌을 사용해 정원 전체에 그림을 그린 형식이다. 이 원피스 전시는 10월 2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다이카쿠지는 8세기 사가천황의 별궁이었다. 당시 일본과 당의 교류가 늘어났고 서사화에 능한 천황 덕에 문화 · 예술이 이 궁전에 모이게 됐다. 이때부터 다이카쿠지는 현대 일본서 빼놀 수 없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 사원은 전시회나 공연도 종종 개최한다. 작년에는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공연을 열기도 했다.

박진형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근일
회주 송암혜승
동당 원조각성
주지 남전호성
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성공
호법국장 정우 사회국장 등안
교무국장 명인 재무국장 두현
포교국장 동우

고운노인요양원원장 석우
의성노인복지관관장 선주
영주장애인복지관관장 도선
사찰음식체험관관장 원해
연화마을관장 구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관장 최유형
안동장애인복지관관장 전만호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마음기부 하세요"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장기 ·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환자후원사업
◆자살예방교육사업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 면
TEL. 02-734-8050
www.lisa.or.kr